

# 임실 성수산서 산림 휴양 즐긴다 친환경 축제 '춘향제' 만든다

### 20일~11월 30일 산림레포츠 시설·숲해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임실군이 오는 20일부터 성수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 시설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림 휴양 수요증가에 발맞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모험과 체험을 즐기는 방문객을 위한 산림레포츠 시설로 '볼러코스 터널 질러인'과 '로프체널' 등 2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전한 체험 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레포츠 지도사와 보조인력 등 총 6명의 운영 요원이 상시 배치되며, 프로그램은 하루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운영된다.

회당 체험 인원은 30명 내외로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평일에는 단체 예약도 가능하다. 숲해설 자연속에서 여유와 정서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방문객을 위한 숲해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성수산의 다양한 식생을 관찰하는 생태탐방



임실군이 오는 20일부터 성수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 시설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과 신비로운 이끼체험 등의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하루 2회 진행되며, 회당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만으로 운영돼 깊이 있는 숲 체험을 제공한다. 숲해설 프로그램은 전화예약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모든 체험비가 무료로 운영돼 누구나 부담 없이 성수산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무일은 산림레포츠 시설은 매주 화요일, 숲해설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이다.

아울러, 군은 오는 21일과 28일 성수산 잔디광장 일원에서 '성수산 왕의숲 힐링워크'를 개최한다.

/임실=진총영 기자

## 순창군, 산불 대응 역량 강화

### 공무원 진화대 산불진화 훈련 실시

순창군은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등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운영된다.

지난해 4월 구성된 공무원 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진화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00명이 2개 조 10개 팀으로 편성된 조직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지휘 훈련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상황에 가정에 신속한 초기 대응과 현장 지휘

체제 확립, 산불통합지휘본부 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공무원 진화대와 산림재난 대응단, 산림공원과 직원, 소방·경찰 등 180여 명의 인력과 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가 동원돼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상황에 가정에 신속한 초기 대응과 현장 지휘



체계 확립, 산불통합지휘본부 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공무원 진화대와 산림재난 대응단, 산림공원과 직원, 소방·경찰 등 180여 명의 인력과 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가 동원돼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현장 중심 농특산물 수출지원 정책 추진

남원시가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정부가 K-FOOD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 인증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수출국 및 수출 품목 다양화를 2026년 농특산물 수출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의 2025년 농특산물 수출실적은 신선농산물 약 23억 원, 가공식품

약 165억 원을 기록, 올해 신선농산물 30억 원, 가공식품 포함 농식품 수출 2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해외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관내 농식품 기업과 수출 유망 제품 정보를 집약한 통합 카탈로그 제작을 완료, 해당 카탈로그는 향후 해외 바이어 상담과 현지 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수출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해 각 기업의 수출 추진 현황과 경쟁력을 점검했으며, 애로 사항을 청취해 수출 유관기관 지원 사업과 매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 농식품 기업의 판로 다각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과 해외 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 지원 사업도 추진, 올해는 상담 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지 유통매장 내 시식·홍보 등 판촉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자원순환 실천 위해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도입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광한투원 및 요정변 일원에서 열리는 '제96회 춘향제'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먹거리 부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실용성 있는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다회용기(그릇, 접시 등) 사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축제 기간 먹거리 부스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방문객은 식사 후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전용 반납함에 용기를 반납하면 된다.

수거된 용기는 전문 세척 업체에 보내져 위생적인 세척·살균 과정을 거친 뒤 다시 현장에 공급해 축제장 내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장 주요 지점에 다회용기 반납함을 배치하고 전담 운영 인력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특히 야간용 조명과 LED 간판, 안내 배너 등을 활용해 시민성을 높임으로써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기



남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이번 춘향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개최될 흥부제와 남원국제드론제전에도 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연중 이어지는 지역축제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탄소중립 실현'과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확립한다는 전략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수시특강 촌촌학습 시즌1' 운영

남원시는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한 '2026년 남원시 수시특강 촌촌학습 시즌1'을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수강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남원시 통합에 약·신청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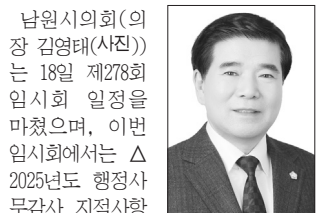
촌촌학습 시즌1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배움을 지원하는 '일상제를 평생 교육'과 생각의 폭을 넓히는 '자유반딧불'로 구성되며, 교육 과정에 한해 수

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밀착형 실용 강좌와 인문·사유형 강좌를 균형 있게 구성해 시민들이 취향과 관심에 따라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시즌에는 총 10개 과정 41회차의 강좌를 마련했으며, 수강료는 1회당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자녀 부모, 한부모가정 등은 증명서류 제출 시 1개 과정에 한해 수

## 남원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는 18일 제278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보고 △일반인건 심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는 소태수 의원과 오창숙 의원이 시장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과 이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태 의장은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봄철 조림사업 본격 추진

임실군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봄철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봄철 조림사업은 사업비 976백만원을 투입하여 133ha에 팽백, 소나무, 상수리, 낙엽송, 백합 등 38만본을 식재하며, 4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경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주의 선호도와 묘목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경관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관 조성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과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들이 감나무, 두릅나무 등 단기 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수를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용수 보조 조림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임실=진총영 기자

### 순창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무료 안과 검진 실시

순창군은 오는 4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둔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眼)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4월 3일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650-5245)으로 신청하거나 각 면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검진은 노인 안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추진된다.

검진에는 안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8명의 검진팀이 참여해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을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눈 질환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인공눈물과 안약을 처방하고 돋보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